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3>



행복을 가져오는 주문

주문을 외우면 초능력에 생기거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한 말을 외워 뒤뚱이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자식들이 일류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주문을 외우려고 할 것이다. 모 신흥종교에선 아직도 주문의 효능을 믿으며 자신들의 교주가 하늘로부터 들은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문은 일상언어와 달리 이해되지도 않아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주문의 효과를 믿는 사람들은 소리 그 자체가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주문은 또한 그 주문에 감응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한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브라흐민교는 주문을 암송하면 행복을 얻고, 죽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주문의 신앙에 대해해 붓다가 제자들에게 주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붓다가 가르친 주문은 주술적인 주문과 달랐다. 말소리 자체가 어떤 특수한 힘을 지니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일체 중생에 대하여 자비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자비경>을 설하시게 된 동기는 붓다교사가 쓴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비구들은 적당한 거처를 찾았다.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렀다. 주야로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골랐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들에는 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 나무신들은 정진하는 비구들을 존경하여 가까이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 처음에 나무신들은 비구들이 기뻐해야 하구나 이를 목어기리라 생각하고 가까이 불편을 참았다. 그러나 여러 날이 가도 계속 비구들이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그들은 비구들을 빨리 떠나게 하고 싶어했다. 신들이 마침내 수행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끔찍한 소리를 내어 괴롭히자 수행자들은 겁에 질려 떠나게 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사뱃티에 도착하여 세존께 자신들의 끔찍한 체험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자비경>을 외우고 뒤아라. 이는 명상의 주제일 뿐 아니라 호신주도 되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자비

미운 사람의 행복 염원하는 자비 주문 외우자 온전한 사랑 담으면 적조차 온화하게 만들어

리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에서 힘이 발생한다고 가르쳤다. 다른 종교들의 주문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무의미한 말들의 조합에 지나지 않지만 붓다의 주문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숫타니파타>의 <자비경>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주(護身呪, paritta)로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애송되고 있다. <자비경>은 능히 자신의 안부를 지켜주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며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해줄 수 있는 신비한 문구로 독송되고 있다.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즉 강하든 약하든 모두 행복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상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붓다가 제시한 주문은 한마디로

경>을 읊으시자, 비구들도 세존 앞에서 따라 외운 다음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왔다. 비구들이 <자비경>을 암송하며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명상하면서 다가가지, 신들은 비구들을 깊은 공경심으로 맞아들였다. 신들은 3개월의 우기 동안 비구들을 여러 모로 돌봐주었음 뿐만 아니라 조금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었다. 덕분에 우기가 끝났을 때엔 모든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비의 주문을 암송하면 자신을 해치려는 독사조차도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 비구가 독사에 물려 죽은 사고가 부처님께 알려지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의 주문을 외우라고 하였다.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비의 주문은 적도 온화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광복한 코끼리가 부처님과 그 제자를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부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비심을 코끼리에게 보내 날뛰던 코끼리를 유순하게 한 이야기는 자비의 주문의 효력을 보이는 것이다. 미운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염원하는 자비의 주문을 외워보도록 노력해 보자.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생활속에서 늘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며 실천하는것이 참불자의 삶"이라는 정각 스님.

부처님 말씀 한순간도 놓지말라



정각 스님

(법륜종 종정)

옛날 조주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日是好日)'이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좋다고 하면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 가을에는 맑은 달이요 겨울엔 흰눈이 있어 좋구나(春有百花 夏有風 秋夜明月 冬有白雪)'라고 했지요.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좋은 날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날도 허공처럼 머무름이 없었을 때 좋은 날인

'나' 버리는 공부 '금강경'이 으뜸

줄 알며 삽니다. 모든 것을 놓고 비우고 싶 때 좋은 날이고 생활이 편안해 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바로 비우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늘상 말이나 생각으로 '비운다, 놓는다' 하면서 막상 사물을 대하고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현실입니다. '나'를 버리는 공부로 <금강경>이 가장 으뜸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여래(如來)는 잡다운 말을 하는 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이며,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말만 하는 이다(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誑者 不異語者)'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확실히 체험해야 합니다.

<금강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하면, 먼저 '무릇 있는 바 상(相)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여래를 보게 된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即見如來)'는 것입니다.

또한 본론적으로 '만약 색신으로써 나를 보려 하거든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실패



30여년간 생활불교를 주창해 온 정각 스님은 보현정사(www.bohyun.net) 홈페이지에도 운영하고 있다.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느니라(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고 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으로 '일체의 유위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一切有爲法 如夢 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고 하였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놓고, 비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기에 조주 스님도 '평상심이 도(道)'라 하셨습니다. 도(道)가 길밖에 또 생활밖에 따로있는 줄로 알면 잘못된 것입니다. 평소의 내 생활 그대로 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는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부처님 동행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질의 스님이 불뱀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질이 있던 곳을 불신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 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원이 복원 불사 중 명숙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측하여 세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도량>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원 합장

홍체학의 비법 특강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홍체학은 무엇인가?
"최첨단 눈 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눈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어요. 홍체와 자연치유 영양의학"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트 공홍진교수와 필자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개발
한국기문미래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연치유 의학에 시자,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10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97-8709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 ~ 6시)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 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

불교 불모지 옥토로 일군 '무쇠'

기자가 된 정각 스님

의외였다. 스님들을 만나면 알고 싶어도 물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 중 하나가 속가(俗家)와 출가(出家) 이야기이긴만 정각 스님은 허물없이 들려준다. 스님이 대학 때 고시를 준비하던중 병을 얻어 요양차 간 곳이 속가 은사가 주석하고 있던 지리산 백장암이다. 그는 사는 지난해 일찍인 청화 스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세속의 은사였고 출가는 은사로 이어졌다.

정각 스님이 들려주는 청화 스님 이야기는 흥미롭다. 55년전, 무안 해운사에 계시던 청화 스님은 직접 탁발하여 땅을 중학교를 건립했고, 승복 입은 채 수학을 강의했다. 스님의 행동, 말 한마디는 그대로 흐트러질 없는 사표였다. 이처럼 큰 스승이었기에 고향에서 청화 스님 권속으로 출가한 이가 놀랍게도 100여명이라 한다.

강원도 선방에서 정진하던 정각 스님은 30여년전 '불교 생활화'를

내걸고 목포입구 승달산 자락에 터를 잡았다. 불교 불모지 목포에서 1만여평의 대지에 1만여명의 대중이 심신을 닦아가는 대가람 '보현정사'로 자리잡기까지 정각 스님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한다. 스님은 2시30분에 기상해 참선과 예불에 이어 법회, 불공, 인도대담 등 하루 200~300여명을 만난다. 부전, 법주는 물론 때로는 행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신도와 대중들로부터 '무쇠명어리'로 통한다. 무슨 비말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재근하니 '경전을 독송하라' 한다. 생활 속에 한시라도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한다.

해인사 성우 스님에게 율맥을 전수받은 정각 스님은 '승단의 율이 바로서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으로 요즈음 재을 정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1997년 법률종 3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각 스님은 보현정사 유치원생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로 통한다.

는 자기 반성과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자기 점검이지요. 따라서 불자라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독송해야 합니다. 특히 <금강경>을 독송해 보세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마세요. 입심으로 독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성구 금언(聖句 金言)'으로서 독송하면 사기(邪氣)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독송할 때는 천천히 읽으면 망상이 생기니 빨리 읽도록 하세요. 빨리 읽으면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옛 선사들이 말하기를 '공부할 때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야 날렵한 쥐를

독송 빨리하면 망상 못 들어와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방심이나 흠여짐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출가하여 청화 스님을 모시고 진불암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대중이 묵언하며 아침 점심만 공양하고 오후불식하며 수행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때만큼 공부 잘 되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수행자로서 자세가 흠여지지 않았기에 공부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을 마치고 전국의 선방에서 20여년 공부하다 우연히 허응당 보우 스님(虛應堂 普雨)의 출산계(出山契)를 보았습니다. 보우 스님이 공부하고 저자거리로 나오면서 쓴 시입니다.

'내가 뜻을 세워 공부한 6년, 금강의 본 경지를 보았노라. 사나운 말(馬)과 간사스런 원숭이를 뜻과 같이 길 들었다. 비단옷 입고 밭길을 걷는다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내 법당(法堂)

의 주장자를 곧게 세우고 고통과 시련이 많은 사바세계 중생세계를 찾아가노라' 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세간으로 나가는 보우 스님을 모두 말렸는데 스님은 산문 밖으로 나와 포교하시다가 결국은 제주에서 유생들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무척 고민되었습니다. 불교는 생활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때도 불자들의 생활은 불교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중에서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간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때 보우 스님의 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곧장 불교 불모지 목포에 터를 잡고 '생활불교'를 펴고 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보현정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생활불교에 대해 이해는 하는데 실천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생활불교는 직접 보고, 듣고, 먹고, 잡자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생활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어야지 '이론 따로, 생활 따로' 이어서는 안됩니다.

생활불교를 위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정기법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듣다보면 지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나를 사라나듯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양할 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공양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스며있습니다. 이 공양으로 주위를 달래고 열심히 정진하여 성불하겠습니다.'

집이나 바깥에 어디서든 공양할 때 최소한 이 정

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교가 배불정직으로 산속으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진리탐구를 위해 공부할 때는 산이 필요하지만, 공부가 된 다음에는 중생제도를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요즈음 공부하는 큰 스님들이 산중에만 계시는

큰스님들 도시로 나와야

데 모두 도시로 나와야 합니다. 큰 스님들은 언뜻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견성하신 분들이 저자거리로 나와서 중생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설 거사의 열반송에 '눈으로 보되 분별하지 말고, 귀로 듣되 시비를 가리지 말고, 분별시비를 다 놓아버리고, 마음의 부처에 귀의하라(無所見 無分別 耳聽無聲 絕是非 分別是非 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저의 생활이요,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생활불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이 그리고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느끼곤 합니다. 나중 스님의 글을 읽으로 불자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도량에서 정신 바짝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성성하고 적적하여 자기의 본래면목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 보이는 만물이나 보이지 않는 일체민들이 본래 그대로 주인이다. 참된 성품은 두루 밝아 본래 한물건도 없나니 목마가 밤에 우니 서쪽에서 해가 뜨도다.'

정리·사진=이준엽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고산 스님(2)

고산 스님이 오시기 전 쟁계사는 살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뒤주에는 쌀이 없어 늘 텅 비어 있었고, 요사채는 퇴락할 대로 퇴락할 날 무히기 그지 없었다. 신도도 없었다.

그러나 스님이 오시고 부터 도량 곳곳에 변화가 왔다. 요사채를 비롯 모든 전각은 단정하게 정비되었거니와 알맞은 크기로 자리잡았고, 신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사찰의 토지도 모두 되찾았다. 버려져 있던 밭들은 스님의 손에 의해서 여름에는 고추와 상추가 가득했고, 가을에는 무와 배주로 넘쳐났다.

고산 스님을 뵈려고 오는 신도들은 낮에는 밭이나 불사 현장에서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스님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방에 계시지를 알았

부산 연산동의 혜원정사와 부천 원미동의 석왕사는 고산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당시만 해도 사찰의 창건은 인연 따라 짓는 것이 스님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 하지만 스님께서서는 부산시청이 동래로 옮겨온다는 것을 알고 혜원정사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석왕사는 부천시 인현과 서울의 최대 배후도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혜원정사와 석왕사의 사세(寺勢)는 도심 포교당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혜원정사가 위치한 인근의 연산동 토터리에 부산시청이 옮겨와서 부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석왕사는 창건당시에는 한적한 산골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수도권 외곽의 비약적인 팽창으로 부천의 불교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부산 혜원정사 법당 불사 때 나는 스님 열방에 거거하면서 심부름을 했다. 스님은 새벽에불이 끝나면 저녁 공양 때까지 인부들과 함께 일을 했다. 스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너무나 강도 높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흘 안에 코피를 쏟게 되어 있다. 나도 사흘만에 코피를 쏟았다.

수건 하나도 십년 넘게 사용

경·율·론은 물론 모든일 '박사'

고산 스님은 평생동안 지도와 불사로 일관해 왔기에 어느 정도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필립이를 금세 읽어내신다. 마주앉아서 스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으면 그 형형한 눈빛이 내 속을 훤히 꿰뚫는 것 같아서 저절로 가슴이 움추러 든다. 또한 스님은 이야기도 청산수술로 잘 하신다. 곁에서 일하면서 스님말씀을 듣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게 된다. 스님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매력이 있다. 그것은 물론 당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청정하게 실천하는데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단지, 종교부지를 확보하여 오늘날의 금성장을 이뤄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을 계획이나 입안 단계서부터 접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도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도시개발의 산물인 종교부지를 타종교가 독식하고 대도시의 전도활동에 역동적인 힘을 쏟아부을 때 불교는 오히려 도심의 한 축인 불은사의 그 광활한 땅을 활활에 매각할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당시 불교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도심교교의 중요성에 제대로 눈뜨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고산 스님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한 수행과 앞서가는 안목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불교가 동력의 축이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님의 탁월한 안목과 견고한 수행력에는 늘 고개가 숙여진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장자를 패는 등 늘 부지런한 스님 모습에 신도들은 더욱 더 인망이 낳다.

한번은 스님이 방 헛대에 걸려있는 수건을 가리키며 '십 년째 사용한 것'이라고 지나가듯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시종틀과 신도들의 공양물을 대하는 스님의 사고방식과 그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얼마나 생활 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산 스님은 경, 율, 논에도 해박하지만 농사일이나 원예에도 '박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능통하니 스님의 상좌들은 은사스님 앞에만 서면 저절로 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스님이 부처님임을 말할 것도 없고, 농사, 원예, 목공일까지도 마땅히 없으니 그 저 자랑스러워 할 뿐이다. 내가 옆에서 지켜본 고산 스님의 하루는 1년 365일이 한결같았다.

고산 스님은 당대의 대 강백 고봉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부산 내원정사 창건주인 석암 노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쟁계사에서서는 보살계를 심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법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있다. 스님이 가시는 곳마다 신도들이 넘쳐 나고, 하시는 불사마다 성황을 이룬다.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랑대전적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단! “500분” 제만! 기획을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禪·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중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인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
책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하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칭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효유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심술

▶ 개강 : ● 2004. 6. 9 (주·아간반 : 3개월 완성) ● 2004. 7. 5 (주·아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직감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2004. 6. 11 (주·아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양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